



보도시점

2026. 6. 10.(수) 12:00  
(2026. 6. 11.(목) 조간)

배포

2026. 6. 10.(수) 09:00

## 통신3사,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으로 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기여

-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 간,  
최고의·안정적 통신품질 제공 -

-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허용 첫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방청과 통신사가 제안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현장 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화를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 등 통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의 통신이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신고자인 일반 이용자와의 통화,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통화 등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통신3사는 소방대원 단말(법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USIM) 등을 적용하여, 통신망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신호가 우선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번 서비스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LGU+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하여 시작되었고, 이후 SK텔레콤, KT가 참여하면서 통신3사가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통신3사는 기술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하여 우선전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용도에 한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통신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관에게 신고자 확인, 응급실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통화 등이 필수적인 만큼 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극심한 통신 혼잡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 안정성이 강화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전송(Priority Service)’ 체계를 도입하여 긴급구조 대원의 통신 품질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구축하여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는 성격이 구별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신을 지원한다면, 이번 우선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이용자(신고자·의사 등) 간의 통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두 방식을 병행 활용하여 긴급구조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한편, 통신3사의 5G SA(Standalone, 단독모드) 구축이 올해 연말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긴급구조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첫 적용 사례”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라며 “상용 이동통신망에서도 통신 우선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규철 (044-202-6640)
		담당자	사무관	박재성 (044-202-6644)
관련 기관 소방청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	책임자	과 장	김형국 (044-205-7260)
		담당자	소방장	김문선 (044-205-7274)

